: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62회〉

# "내가 이긴자다!" 자칭하는 종교는 비진리요 마귀역사이다

이긴자 일대기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1) 하와 이긴자와 밀실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3) 제3신앙촌의 비화(祕話)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5) 밀실에 입문하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 3) 제3신앙촌의 비화(祕話)

(지난호에 이어서)

1981년 7월 4일에 영모님은 부산 기장에서 설교말씀 중 '전도사 생활 오래해도 소용없다. 손 떼고 나가는 것이 낫다. 이 바탕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키우면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모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저 멀리 소사 신앙촌의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가 전도하러 1981년 8월 18일에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집 저 집 옮겨서 가정예배를 보며 한 사람씩 끌어 모아 의인을 만드는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제단의 초창기 역사는 아담 이긴자가 전도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어 40명의 신자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역곡동 소재 경인냉동 옆에 20여 평짜리 2층사무실을 얻어 1981년 10월 10일부터 제단에서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께서는 기장에 계신 영모님을 주장하여 신앙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학생들이 다리를 건너갈 생각을 안 한다. 여기 말고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 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이다(1981년 10월 10일 축복일)."라고 하셨는데, 이는 전도관을 떠나 승리제단으로 가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긴자가 20평의 제단을 얻자 그 제단의 규모만큼 식구들이 금방 채워져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소사 역곡역 근방(역곡동 74-141번지의)으로 제단을 옮겨야 했는데, 지하 40평짜리 크기의 조그만 제단이었습니다.

### 죄를 담당하고자 피를 토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저 아래 영모님도 똑같이 피를 토하는 것이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라는 찬송 가사처럼, 이 에덴동산인 아담 이긴자와 저 에덴동산인 영모님이 마주쳐 울렸던 것은 소사 역곡의 승리제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저 아래 기장신앙촌에서 나오는 말씀이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곡역 근방으로 옮긴지 얼마 안 되어 150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아담 이긴자가 단상에서 "내가 의인 150명을 만들었다."고 선포하니까, 저 아래 기장에 계신 영모님이 똑같이 "내가 의인을 150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200명이 되니까 아담 이긴자는 "내가 의인 200명을 만들었다."고 역곡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래에서도 영모님도 "내가 의인 200명을 만들었다."고 그대로 복창하는 것입니다.

1981년 12월 20일 서울 청량리에 제단을 개척하고 이어 1982년 4월 15일 인천에 주안제단, 1982년 5월 1일 전북에 무주제단, 1982년 10월 15일 부산 망미동에 부산제단 등 우후죽순으로 제단이 생겨나고 교인의 숫자도 크게 불어나게 되자, 1983년도에 역곡역 근방에 있던 제단이 칸막이 벽을 없애고 두 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역곡본부 승리제단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들어 매년 1월 1일에 열리는 이슬성신절과 10월 15일에 열리는 승리절과 같은 절기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역곡본부 승리제단으로 옮긴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둘째아담 이긴자는 단상에서 "이 제단에 나오는 사람들 다 왕의 반열에 세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 아래 기장 하나님이 "의인들을 900명 만들었다."고 복창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승리제단 교인의 숫자가 여자 750명과 남자 150명으로 전체 900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 만왕의 왕(양도천씨)

아버지 하나님(안상홍씨)

보혜사성령 하나님(박명호씨)

이렇게 하나님이 되면 하나가 되어서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아서 행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사 역곡에서 아담 이긴자가 죄를 담당하고자 피를 토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저 아래 영모님도 똑같이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스스로 "내가 이긴자다."라고 한 적이 없으나, 영모님이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라고 하시면서 이긴자가 역곡에 서있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런 계통으로 내려오면서 먼저 이기신 하나님이 증거를 해줘야 바통을 받은 이긴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야 진리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배기들이 "내가 이긴자다!"라고 자칭하는 역사는 비진리요 마귀역사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확연히 분간되는 것입니다.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감람산 기슭의 밀실에서 해와 이긴자가 십여 년의 세월동안 털보 전봉국 집사를 키워보았지만 자꾸 떨어지고 음란을 시험하는 최종관문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아담 이긴자의 후보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사람을 이긴자로 키워봤지만 다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어 연단을 받다가 못 견디고 전부 도망가는 것입니다. 고된 중노동과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또 가족을 생각하지 말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이긴자 후보자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첫 단계의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감

해와 이긴자가 참견하면 참견하는 음란죄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음란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개 패듯 하니까, 밀실에서 매를 맞고 연단 받던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이긴자이라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유리거울 속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읽는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지적하니까 이 여자 분에게 연단 받던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고 해와 이긴자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해와 이긴자라는 분이 '요래 요래' 하면 몸속에 있는 죄 뿌리가 빠져나오면서 시원하게 은혜가 연결되며, 손을 펴서 기운을 부으시면 은혜가 쏟아져 나와서 연단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이긴자가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에 우산을 쳐들고 하늘을 향해 뭐라 뭐라 외치면, 일순간 먹구름이 일어나 쨍쨍하게 비치던 해를 가리고 천지가 어두컴컴해지면서 소낙비가 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의 후보 몇몇을 키워보아도 매번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해와 이긴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관 식구들한테 존경을 받고 기도생활에 충실하여 기도만 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석사집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석사집 전도사를 밀실로 이끌어 와서 연단 받게 하면 이긴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첫 단계의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걸 지키려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아니하니까 도망쳐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관장도 또 키워봤지만 마찬가지로 밀실에서 도망쳐 나갔는데, 그 송 관장은 밀실에 거처하던 그의 방에서 재래식 공동화장실에 가려고 대문밖으로 나오면 그것도 밤중일 때에는 어김없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소복(素服)을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쓱 없어지니까 소름이 끼쳐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승리제단(일명 백만제단)은 영모님 때에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짓게끔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담 이긴자 후보를 한참 찾을 때, 해와 이긴자는 1978년경 망원동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밀실에서 은혜를 받는 스물다섯 명가량의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긴자 후보자가 밀실에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한편 저 아래 부산 기장에 계신 영모님은 이미 1978년 초부터 당신을 따르는 전도관 교인들에게 "앞으로 승리제단이라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여 땅만 사라. 그러면 건물은 이 사람이 짓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제단은 백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단상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형건물이 빙글빙글 돌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회전하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이 완공되면 그 중앙 단상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의 집집마다 텔레비전에 방송되며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전도관의 교인들은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있는 정성을 다해 연보하였습니다. 특히 제3신앙촌 기장에 오지 못하고 제2신앙촌 덕소에 남아 있던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님의 승리제단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만 해도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영모님께서 승리제단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활기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승리제단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헌금이 일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3조 원에 해당하는 헌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1978년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둬들인 헌금으로 지금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 부지를 승리제단 부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모님은 서독에 가서 유명한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설계를 해놓았다고 하면서 승리제단을 곧 건축할 것처럼 대형조감도까지 크게 그려서 기장 신앙촌 중심부에 세워놓고 과시하였으나 시간만 끌뿐 승리제단을 건축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희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백만제단(白萬祭壇) 또는 승리제단은 다섯째 천사가 되는 영모님 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되는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짓게 되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밀실로 이끄는 시점에 이르자 미리 승리제단을 발표하신 것이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

新金剛經解說

#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9〉

##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第十七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나 그 당시부터 석존 사망 후 지금까지 자그마치 3000여 년 가까이 불교에서는 석존도 그렇지만 일반 스님들까지도 사람들을 교화하고 제도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석존의 경전 중에서 아래의 법화경을 참고하여 보시겠습니다.

▣ 묘법연화경 제1권 방편품(方便品) 第二

從不二小乘 濟度於衆生
종불이소승 제도어중생
佛自在大乘 如其所得法
불자재대승 여기소득법
定慧力莊嚴 以此度衆生
정혜력장엄 이차도중생
自證無上道 大乘平等法 若以小乘化
자증무상도 대승평등법 약이소승화
乃至於一人 我則墮慳貪 此則爲不可
내지어일인 아즉타간탐 차측위불가

끝내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므로 부처(미륵부처님)는 대승의 진리로 자재하며 그 법을 얻은바 정혜력(定慧力)으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되 스스로 위없는 도 즉 대승의 평등법(平等法)을 증득하신 것이니라. 만약 소승의 법으로 한 사람(나 자신)이라도 교화했다고 하면 나는(석가모니 자신도) 간탐에 떨어지므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해석] 석존은 이 법화경을 석존 인생 후반부의 끝인 연세가 72세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입멸할 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법화경의 내용과 같이 한 사람의 중생도 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도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한량없는 복락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석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사실을 볼 때에 부처님이 되게 하는 성불의 법과 진리가 없었으며, 이러한 방법을 몰랐으니 제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금강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 마침내 나라는 존재는 없다_(6)

何以故 須菩提 實無有法名爲菩薩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명위보살
是故佛說一切法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시고불설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법이 없는 것을(보살이 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 보살이라고 이름하고, 그런고로 여래(석존)가 말씀한 모든 법은 아상이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다고 한 것이다.

[해석] 석존은 이 문장에서도 실제 법이 없음에도 법이 없음을 바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불교(佛敎)가 있지도 않고, 종교에서 방편으로서 비록 유위법에 근거한 대중의 가르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착함은 권하고 악함은 반드시 징계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가르쳤기에 그나마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 혼탁함 속에서도 유지하여 온 것입니다.

若有人言如來得阿褥多羅三藐三菩提
약유인언여래득아누다라삼먁삼보리
須菩提 若菩薩作是言
수보리 약보살작시언
我當莊嚴佛土 是不名菩薩
아당장엄불토 시불명보살
何以故 如來說莊嚴佛土者
하이고 여래설장엄불토자
卽非莊嚴 是名莊嚴
즉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야, 만일 보살(석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석존)가 말씀하시기를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함은 곧 장엄이 아닌 것을 일러 장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해석]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석존은 실제로는 부처님의 땅이 없지만 "부처님의 땅이 있다"고 하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방편의 가르침을 폈다고 수보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지금의 세상이 부처님(法身佛)이 말씀하시는 청정불국토(淸淨佛國土)가 아니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須菩提 수보리
若菩薩通達無我法者
약보살통달무아법자
如來說名眞是菩薩
여래설명진시보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無我)의 법을 통달했다면, 여래(석존)가 말씀하는 이 보살이 진짜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다.

무아상경(無我相經: Anatta-lakkhana Sutta)
https://smz20121215.pixnet.net/blog/post/43868620

[해석] 그러므로 석존은 참으로 불법을 배운다면 금강경의 책머리(序頭)에도 말씀했듯이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아상(我相)이 없어야 하는데 나(我)라는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수행을 했다면 과연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같이 너와 나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나(我)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린 상태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이름도 잊고 과거가 기억도 안 나는 정도로 무아에 통달해야 비로소 무아상(無我相)에 도달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불도를 닦는다고 할 것이며, 보살에 대해서 진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동대 역경원 간 불교 사전의 참뜻은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보살의 참뜻은 불도를 올바르게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결국 무아경(無我境)에 도달하여 진정한 선라(禪裸)의 경지에 있으면서 모든 번뇌의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도를 닦는 이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살이 참으로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요즘의 불교계를 보면 엉뚱하게도 절집에 오는 여자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절집을 지금같이 유지하게 도와준 주인공들이 우리들 재가 불자요 재가 불자(在家佛子)들 중에 여성분들이 70%가 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아부성(阿附性)(?) 말씀인 보살(菩薩)의 칭호(稱號)를 붙여 줘야 쌈짓돈이라도 나올 테니까 아니 할 수도 없었겠지요.*

明鍾